**부산교통공사 자기소개서**

직무 : 기관사

**성장과정**

 저는 삼형제 중 막내로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두 분은 마흔이 넘는 늦은 나이에 저를 보셨고, 바로 위의 형과는 열두 살의 나이 터울이 졌습니다. 집안의 막둥이로 부모님과 형제들 모두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가족의 각별한 사랑으로 유년시절을 보낼 수 있었지만, 비교적 이른 나이에 어머님과 아버님을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는 형들과 셋이 생활해야 했고, 저의 앞길은 제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결정에 따른 결과는 제가 책임져야 하는 저의 것임을 어려서부터 체험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일찍이 책임감과 자립심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넉넉하지 못한 집안 형편으로 비싼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기 힘들었고, 군대 제대 후, 뜻을 품고 캐나다 길에 올랐습니다. 홀로 떠난 캐나다에서 삼 년 여간 생활비를 마련하며 영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타국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으로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저 자신을 더욱 성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원동기**

 저는 꿈을 좇기보다는 주어진 현실에서 윤택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보험회사 6년, 작은 점포를 2년 여간 운영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족하지 않은 삶을 향유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만족되지 못한 기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부산교통공사에서 교육생을 선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잊고 있던 꿈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기관사’라는 직업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운행하는 기관사라는 직업이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비춰졌습니다. 저는 잠시 잊고 있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던 일을 그만두고 부산교통공사 교육생을 과감히 지원했습니다. 철도차량 2종 운전면허 교육생 1기로 선발되어, 면허취득과 공채 시험 필기를 통과하고 교육생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진정으로 원하던 일이 기관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막연히 동경했던 꿈에 가까이 다가가보니 구체적인 부분, 저의 적성과 흥미 등 여러 면까지 제게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열정을 담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

 저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에 대해 생각하는 기관사가 될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제 개인적 노력에서 그치지 않고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유용한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더불어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 발생에 대한 해결책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불감증은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관사라는 직업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항상 일에 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또 다시 이용하고 싶은 부산교통공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객들의 성별, 연령별 차이를 두어, 서로 다른 고객들이 원하는 여러 서비스를 맞춤형식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항상 열린 사고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서비스 개선과 안전한 시설물 이용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기관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